

책상에서 현장으로... 국제개발 협력 실험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브릿징 글로컬 캠프 후속
현지조사단 우즈벡 파견
전북-우즈벡 청년 참여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브릿징 글로컬 캠프' 국내 캠프를 통해 도출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파견을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 학생 등 전북과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브릿징 글로컬 캠프를 통해 도출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장을 방문했다. 책상 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묻는 현장 중심의 국제개발 협력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전북대가 운영하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브릿징 글로컬 캠프' 국내 캠프를 통해 도출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파견을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파견에는 전북-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한 팀이 되어 캠프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북 지역에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였고 11명의 조사단이 실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티볼과 초르수 바자르, 마할라 커뮤니티 등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지에서 실현되고, 기존 제도에 맞게 보완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했다.

이들은 두개 팀으로 나뉘어 우즈베키스탄 엄마들을 위한 지역 기반 육아·생활 커뮤니티 앱 'Family'를 제안했

고, 모스크나 바자르 관련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여성 중심 커뮤니티 형성과 자원 공유 가능성을 살폈다. 또 다른 팀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소아의료 접근 지원 앱 'Shikkar'이 실제 현지 생활에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대학과 병원, 유치원 등을 찾아 현지 의료 이용의 현실을 살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농촌진흥청 KOPRA(해와농업기술개발사업) 우즈베키스탄 센터 IT Park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ODA 사업 동향과 스타트업·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실제 업무 환경과 협업 구조를 직접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단순 탐방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세운 가설과 MVP(최소기능제품) 모델을 현지 수요에 맞춰 정교화하는 '실증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지민 학생은 "국내에서 기획했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현지의 문화와 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

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으며, 안유진 학생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한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백승희 센터장은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얻은 경험은 향후 글로벌 사회혁신가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피지컬AI 기반 지역혁신 앞장

전주대, 내달 3일 RISE 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지역 기업·기관과 추진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업지원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o-breathe, So-bright RISE 성과공유·미래협력 포럼을 다가오는 2월 3일에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RISE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피지컬 AI(Physical AI)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전략과 대학·지역 간 공동 실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RISE사업 단위 과제 및 프로그램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부스와 피지컬 AI 관련 기업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

포럼은 박승대 피지컬AI사업기획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RISE사업단 트랙별 성과보고와 2차년도 발전계획 발표, 피지컬 AI 기반 지역혁신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전에는 우수기관·기업 유공자 시상과 성과 공유 중심의 공식 행사가 진행



되며, 오후에는 미래협력 포럼과 자유 네트워킹을 통해 산·학·연·관 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Co-breathe)하고, 더 밝은(So-bright) 미래를 함께 여는 RISE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혁신 플랫폼의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연구·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교실·일상생활서 민주주의 가치 실천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

내달 6일까지 교사 대상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실과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발견·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서 속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민주시민교육은 체험과 실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의견'을 나누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학교교육과정 실천 지원에 방점을 두고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콘텐츠·교수학습 자료 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 3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별 상황에 적합한 토론 및 참여형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 평화 시민성과 미디어 시민성 등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THE 학문분야평가 '연구의 질' 세계에 증명

전북대, 연구 피인용·연구 강점 지표 등 거점국립대 1위... 공학·자연과학 두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발표된 2026 THE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가능하는 주요 지표인 '연구 품질' 부문에서 거점국립대 1위에 오르며 세계적 연구 수준을 입증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올해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는 평가대상 11개 중 7개 분야에서 세계 순위권에 진입하며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연구품질(Research Quality)' 지표다.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거점국립대 1위다.

특히 공학분야의 '연구 피인용(Citation impact)'과 '연구 강점(Research Strength)' 지표에서 각각 61.5점, 64.1점으로 경쟁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점수차를 냈다. 또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연구 피인용(Citation impact)' 점수에서 55점을 기록하며 거점국립대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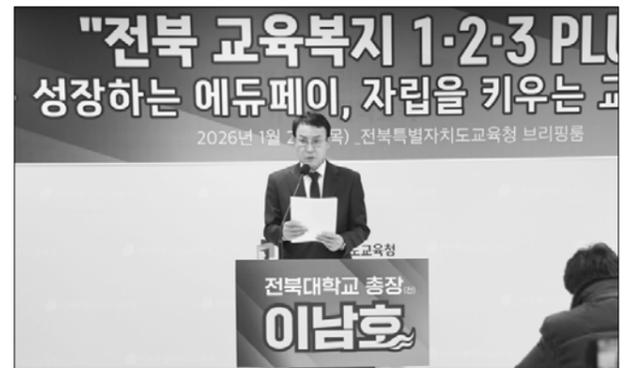
컴퓨터과학 등 분야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세계 순위권을 유지했다.

이는 전북대가 추진해 온 '글로벌 Top100 우수 학문분야 육성' 노력과 글로벌협력30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평가된다. 전북대는 글로벌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 학문 분야 5개, 200위권 학문 분야 4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는 15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했고, 특히 수의학과 석유공학이 세계 10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낸 이후 연이어 연구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외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탁월한 연구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우리대학 연구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세계적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페이 예산 유지·확대 자립펀드 전북형 모델 구현

'교육감 출마'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교육복지 공약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29일 에듀페이 등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까지 연계하는 '전북교육복지 1·2·3 플러스(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기존 교육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 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은 보편적으로 유지되되 학부모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폐교 매입 주체 범위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확대

전북교육청,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 수립·시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장기적인 활용 로드맵을 수립,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IT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

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

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